

오차대에서의 반년간

동덕여자대학교

박서연

k2590009

저는 동덕여대에서 전공으로 아동학과를 전공하고 그 안에서 심리 교육 트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차대에서는 생활과학부 심리학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습니다. 총 수강한 수업은 8개로 전공 수업을 5개, 유학생 수업을 3개 들었습니다.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모국의 학교에서는 어디까지나 아동학과일 뿐 심리학과는 아니었기에 심리학 수업을 중점으로 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전문 용어나 한자가 많이 나오는 전공 수업을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듣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복습이나 예습을 하고 더 수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수업은 '일본 사정 연습 2A'와 '사법심리학'입니다. '일본 사정 연습 2A'는 일본 문화와 일본 사회에 대한 여러 정보를 배울 수 있었고, 다른 학우들과 얘기하며 즐거운 분위기로 진행된 수업이라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법 심리학'은 제가 원래부터 배우고 싶었던 범죄 심리학 분야의 수업으로 배움을 얻어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교 근처에는 마루노우치선과 유라쿠초선이 다니고 있어 이케부쿠로, 긴자, 시부야 등의 번화가 쉽게 갈 수 있었고 아사쿠사와 우에노 근방의 야네센 등 도쿄의 여행지도 다녀왔습니다. 시간을 내서 사이타마나 후지큐 등 도쿄 근교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으나 자신의 체력 부족과 원래 가지고 있는 지병으로 많은 곳을 돌아다니지 못해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합격도 예상 못하고 급하게 왔던 교환학생이라 JASSO 장학금도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돈을 아껴쓰는 것에 전전긍긍 했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모처럼의 교환학생 기회인데 되도록이면 돈 걱정을 안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게 좋은 게 아닐지 생각합니다.

끝으로 일본에서의 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교환학생의 준비 기간부터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지원해주신 국제과 담당자분들, 전공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해주신 전공 과목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지도교수님이 되어주시고 매달 생활 보고서를 전달하면 장문으로 친절히 답장해주신 히라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질문이 있거나 볼 일이 있어 찾아가면 늘 상냥하게 도와주신 기숙사의 관리실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기간을 재밌게 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인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